

홍충선(컴퓨터공학) 교수가 국제캠퍼스 학무부총장에 임명됐다. 새해 새 출발을 앞둔 신입 부총장의 각오와 포부는 무엇일까.



우리학교 구성원이 신임 총장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대학주보



눈 내리는
경희의 어느 날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추운 겨울내 홀로 책을 읽던 소녀 옆에 눈사람이 친구가 돼주었다. 우리 모두 올겨울 눈사람처럼 포근한 온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일반 편입시험 감독논란

장해린 기자 sunblessyou@khu.ac.kr

2024학년도 편입시험 인문계열 일반편입 필답고사에서 엄격한 감독 절차가 생략돼 부정행위가 가능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우리학교 입학처는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2024학년도 편입시험은 수험생의 휴대전화 수거하지 않았고 시험 중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의 금속탐지기 수색도 없었다. 시험 시작 이후 수험생 입실도 발생했다.

시험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희대 편입시험 중 핸드폰 사용이 가능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입학처는 “수험생에게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달라고 공지했고, 응시자의 사생활을 위해 감독관이 화장실 앞까지만 따라가는 방식으로 감독했다”며 “해당 방식의 문제를 논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더 엄격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화제된 게시글은 허위 사실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임을 밝혔다.

이번 편입시험에 응시한 A 씨는 “학생이 마음만 먹으면 부정행위가 가능했으며 시험 시간이 긴 편입시험 특성상 화장실에서 키워드 검색이라도 한다면 일부 문제의 정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응시한 다른 대학은 핸드폰을 수거하거나 화장실에 못 가게 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감독은 매우 허술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학년도 편입시험에 응시했던 학생 B 씨 역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많아 엄격한 감독이 일반적”이라며 “경희대의 관리 감독 방식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17대 총장에 김진상 교수 선임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김진상(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 교수가 제17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공학계열 교수가 총장에 오른 것은 우리학교 역사상 처음이다.

김진상 교수는 1962년생으로, 우리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및 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 대학교에서 디지털회로설계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행정과 관련해서는 국제캠퍼스 입학처장, 학생처장, 취업진로처장, 일반대학원장을 역임했고,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중앙도서관장을 맡고 있다.

제17대 총장 선임은 초빙 공모, 후보자 추천, 숙의·자문, 후보 선정, 심의·의결, 임용 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법인은 지난달 15일부터 3일간 ‘경희의 가치와 기관 행정의 탁월성’을 주제로 후보 5인에 대한 면접을 시행한 바 있다. 이사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 김진상 교수는 2024년 2월 14일부터 2028년 2월 13일까지 4년간 총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역대 총장]

조영식(제1대, 제3대, 제7대, 제8대)

고병국(제2대)

안치열(제4대)

심태식(제5대)

박양원(제6대)

공영일(제9대)

조정원(제10대, 제11대)

김병묵(제12대)

조인원(제13대~15대)

한균태(제16대)

김진상(제17대 취임예정)

주요 정책과 관련해 김진상 교수는 “내부 업무 프로세스의 탁월성, ‘구성원의 학습과 성장’, ‘자원’의 관점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어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가치를 창의성(정신), 협동(업무), 서비스(다양성), 자료(공유와 보존), 수준(비범)으로 설정했다. 김진상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전략 학습, 교무위원 그룹화 등의 대학 경영방식을 내세웠다. 주기적으로 성과를 검토하는 전략 학습을 통해 전략의 논리성을 검증하고, 교무위원을 그룹화해 비전·가치·목표·추진 전략·주도권 등의 전략적 경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 연구 관련해서는 ‘토론식 교육 강화’와 ‘대형 연구과제 수행’을 약속했다. 김진상 교수는 ‘창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창조의 핵심인 ‘기본 개념’ 위주의 맥락 중심 교육과 사고의 영역

을 높일 수 있는 토론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를 ‘선점’하거나 연구팀을 대규모로 ‘그룹화’하거나 ‘많은 연구자가 회피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외의 대형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진상 교수는 ‘경희 구성원의 성장과 전 지구적 커뮤니티의 행복’을 추구하는 최고의 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대학 총장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점하면서 성공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대학 내에 도전과 실험의 문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대학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 본부는 지식·행정·물질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확신을 구성원에게 심어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총장 선임 과정에 수반되는 행정을 지원했던 행정지원단은 그간의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중단할 예정이다.